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WEDNESDAY, July 13, 2022 Vol. 821

UMC 한인교회 동성애 이슈로 교단 탈퇴 갈등 심화

연합감리교회(UMC)가 동성애 문제로 교단 분리 상황에 놓인 가운데 미주 한인연합감리교회 내에서도 UMC 교단 잔류와 탈퇴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UMC 교단 잔류를 희망하는 목회자들이 지난달 30일 뉴욕 한인 일간지에 “한인연합감리교회 연대와 화합을 위한 안내문”이라는 광고를 게재한데 이어,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평신도연합회(회장 안성주 장로, LA KUMC)도 연합감리교회 교단분리(Separation) 및 탈퇴(Disaffiliation)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새로운 보수 감리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GMC)로의 이전을 종용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연대와 화합을 위한 안내문”이라는 신문 광고를 통해 교단 잔류를 주장한 안명훈 목사(아콜라, 뉴저지), 이용보 목사(선한목자, 뉴욕), 정호석 목사(만모스 은혜, 뉴저지), 김규현 목사(열린, 북가주), 문정용 목사(갈보리, 뉴저지)는 “연합감리교단은 소수 인종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신학이 전통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상, 동성애자가 한인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되거나, 동성애 커플을 결혼시키도록 압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애 관련 문제로 인해 한인연합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됐던 KUMC 한인교회총회 2022년 연차총회

감리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인 연합감리교회들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고 있으며, 미국 교회와 사회 가운데 건강한 영성을 지키고 다시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교회건물 및 부동산, 목회자 파송 및 청빙, 목회자 은퇴연령, 인가 신학대학원 등 교단탈퇴 시 야기될 수 있는 어려움

을 언급하면서 “2022년 예정이었던 총회가 2024년으로 연기되면서 향후 2년 간 법적으로 교단분리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없다. 수많은 전통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탈퇴하지 않고 연합감리교회에 남아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미국 전역에서 오히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남는 교회들이 떠나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반대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평신도연합회는 “UMC가 성서적이며 복음주의적이라는 말 장난은 그만해야 할 때”라며 “미 서부지역에서는 동성애자 감독을 선출하였고, 미국 내 여러 연회에서 동성애자(성소수자)들에게 목사안수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도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한시적 특별법에 따라 동성애(성정체성)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차이를 가진 교회들은 교회 건물과 재산을 가지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회와 교단을 떠날 수 있다”며 “남가주 Cal. Pac. 연회와 동북부 볼티모어-워싱턴 연회가 교회건물 가치의 50%, 북가주 Cal. Nev. 연회가 건물가치의 20%를 제시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남부, 동남부 및 중북부 지역 다수 연회는 재정부담을 줄여 UMC 를 떠나고 싶어하는 교회의 부담을 가볍게 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부담이 가능한 교회들부터 친동성애 교단으로 바뀌게 될 UMC를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며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교단의 현실을 사실대로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교인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상의 권리에서 낙태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법원 밖에 있던 수백명의 생명 옹호 지지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Nicole Alcindor/Christian Post

미국 ‘딤스 대 잭슨’ 판결 후 낙태금지 확산... 10개주서 발효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낙태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 낙태 금지법이 10개 주에서 발효되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낙태권 폐지 결정과 동시에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가진 주는 아칸소, 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 등 13개 주다.

29일 기준으로 10개 주는 낙태금지법을 발효했으며, 루이지애나주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지법 시행이 임시 중단됐다.

이 가운데 미주리 주는 ‘딤스 대 잭슨’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지난 24일 공화당 소속인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태아생명권리법’에 따라 주 정부에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반대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성에게 낙태를 시행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지난 24일 크리스티 노엄 공화당 소속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낙태를 즉시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공화당 소속인 존 오코너 오

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은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딤스의 결과로 오클라호마주의 낙태 금지 권한이 확인되었다”며 “오클라호마 주법 제21조 861항을 시행하거나 임신기간 내내 낙태를 금지하는 유사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딤스 대 잭슨 사건의 중심에 있던 미시시피주도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텍사스주는 다음 달 24일부터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가까운 시일 내에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이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미 캘리포니아, '낙태 권리 여부' 올가을 주민 투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올가을에 낙태 권리의 향방을 가리는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7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오는 11월 주민 투표를 통해 주 헌법에 낙태 권리를 성문화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헌법 수정안 10호(SCA 10)를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은 민주당의 토니 옛킨스 임시 상원의장(샌디에이고)이 작성하고, 낙태 옹호 단체인 '캘리포니아 가족계획연맹'과 '캘리포니아 NARL 프로초이스'가 공동 후원했다.

수정안은 양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이날 통과됐다. 여기에서 생식권(Reproductive rights)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권리'와 '피임약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정의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는 수정안의 통과 직후, 낙태를 조장하거나 낙태 시술을 받은 개인에 대해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취하는 다른 주와 주 기관에 환자 기록 및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뉴섬 주지사는 "대법원에 의해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들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도록 승인한 가운데, 캘리포니아는 낙태 권리 보호를 위한 투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11월 우리 주민들이 주 헌법에 낙태권을 포함시킬 기회를 가질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지난주 대법원의 결정과 반대로 뉴섬은 지난 24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인 AB 1666에 서명했다. 강혜진 기자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 복음통일 공모전 개최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대표 임현수 목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는 복음 통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내일 통일이 된다면", "왜 복음통일인가", "통일의 세계사적 의미"로 참가자들은 복음통일 포스터, 복음통일 기도문, 복음통일 연설문 혹은 동영상으로 응모할 수 있다.

복음통일 포스터는 크기 제한 없이 통일의 희망과 통일된 이미지를 그려 출품하면 된다. 복음통일 기도문은 A4용지 2/3분량(글자

크기 11포인트)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복음통일 연설문(혹은 2분 동영상)은 A4 용지 2/3분량(글자크기 11포인트) 혹은 2분 이내의 직접 촬영한 본인의 연설동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창작 그림과 글, 연설문 및 동영상 등을 휴스턴 한빛장로교회 (주소 : 3929 Colgate Street Houston TX 77087) 또는 이메일 gbmwusa@gideonbrothers.org로 2022년 8월 13일(토, 소인날짜)까지 보내면

된다.

발표는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제3차 글로벌 복음통일 전문 선교교과퍼런스' 마지막 날인 8월 19일(금)에 있을 예정이며, 각 분야별로 1천 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을 주최하는 글로벌복음통일전문네트워크 박상원 목사는 "북한선교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다"며 "특히 통일 시대의 주역인 젊은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주 한인 여성사역자들 협력해 선교 앞장서야"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KEPCA) 제1차 여성사역자 초청 컨퍼런스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장 전모세 목사)는 지난 10일, LA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제이제이그랜드호텔에서 제1차 여성사역자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전모세 목사의 사회로 전 칼빈대 총장 김재연 목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여성사역"(갈3:27-29)이란 설교했다. 김재연 목사는 "예수님께서 유대교 전

통에 맞서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전한 증인도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였다"며 여성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봐도 200여명의 여성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는 남편과 자녀를 선교지인 한국에 와서 천국에 보내고도

자신은 44년간 한국에서 병원을 4개나 세우고 교육에 헌신했다"며 "수많은 여성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의 교육과 의료시설이 뛰어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목사는 또 "한국의 수많은 여성사역자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 그 자녀들이 훌륭한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며 "여성사역자들이 협력해 선교에 앞장서야 한다"고 권면했다.

총회장 전모세 목사는 "전세계 여성사역자를 초청해 초교과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여성사역자들이 각계 각층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앞장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부 순서로는 여성사역자위원장인 그레이스 전 목사(오렌지힐스한인교회)가 여성사역자들을 대표해 인사하고 컨퍼런스 참석자들을 소개했다. 또 21년동안 오렌지카운티에서 웨리프 채플린으로 사역한 캐더린 쿠맨(Kathleen Kooiman)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김동욱 기자

사탄교회 지도자, 기독교로 개종... 간증 영상 수백만 명 시청

사탄교회의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심한 간증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에서 사탄교회를 이끌던 리안 스위겔라(Riaan Swiegelar)는 지난 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수님의 압도적 사랑이 사탄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감을 줬다"고 간증했다.

그는 7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라이브 영상에서 "이 영상을 켜 이유는 왓츠앱(WhatsApp)에서 100명 이상, 페이스북에서 200명 이상이 내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탄교회를 떠난 이유와 사탄주의에서 등을 돌린 이유를 알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200만을 돌파한 상태다.

스위겔라 "20년 전 한때 기독교 사역에 동참한 적이 있었지만, 4년 전 큰 분열 속에 사탄주의에 끌렸다. 당시 난 무신론자였

며, 사탄에 속한 이들이 가진 절망이라는 공통점이 날 그 공동체로 이끌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난 마음이 너무 울컥해서 나도 모르게 속상하고 슬펐다. 사탄주의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너무 망가진 곳에서 왔기 때문인 것 같다. 지난 3년 동안 수천명의 사탄주의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의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극도로 부서지고 상처를 입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했다.

이후 스위겔라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기독교인들을 통해 몇 가지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는 평생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했고, 오늘까지 내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 준 기독교인은 4명뿐이다. 그 4명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여러분이 내게 베풀어 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 전부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은 내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다. 난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봤다"고 했다.

스위겔라의 전환점은 한 사탄 의식 중 예수를 믿었던 사람과 신성한 만남을 가졌을 때였다.

그는 "내가 이 의식을 하고 마음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너무 교만해서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에너지를 넘치게 부어 주셨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방식의 선택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만남 후 그는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닫힌 공동체가 아니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강혜진 기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탄주의에서 돌이킨 리안 스위겔라(Riaan Swiegelar)가 간증을 전하고 있다. ©페이스북

그는 "새로 발견한 믿음의 여정을 여전히 배우는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나눌 것"이라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강혜진 기자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지자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내이비스USA이사장
(전)남가주 교외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재미발광기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미주장신대, 미주한인신학교 최초 '교역학 석사 원목과정' 개설

교역학 석사 과정 이수하며 원목 지원 자격 취득

미주장로회신학대(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는 오는 2022 가을학기부터 교역학 석사 원목과정(Master of Divinity in Professional Chaplaincy)을 개설한다.

미주 한인신학대 가운데 처음으로 개설된 미주장신대 교역학 석사 원목과정은 원목 자격 취득에 필요한 4개의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수업을 교역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주장신대 석사 원목과정을 졸업하면 졸업 후 다른 수업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원목(BCC, Board Certified Chaplain)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수 도게 된다.

미국신학교 가운데 원목과정에 필요한 4개의CPE 수업을 석사 과정 중에 마칠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년간 의료기관에서 전문 원목으로 경험을 쌓은 교수진들과 현장실습을 하며 원목 사역을 이해하고, 원목에 필요한 전문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할



미주장신대 '교역학 석사 원목과정'을 소개하는 김루빈 교수(우)와 김효남 교수(좌)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원목 경험이 풍부한 김효남 목사가 책임교수로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효남 목사는 롱비치 메모리얼 병원 원목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기독교 원목단체인 HCMA 채플린본부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원목과정을 이수한 후 주정부로부터 발행

되는 원목 자격증을 취득하면 병원, 양로원 등 각종 의료시설에서 원목으로 재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 연방정부 교육국 인가 신학교에서 교역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원목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미주장신대 원목 수료(Certificate)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이상명 총장은 "미주한인사회도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주장신대 원목

과정을 통해 앞으로 많은 한인 원목들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무처장 김루빈 교수는 "이번 원목 과정은 신실한 목회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누는 원목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개설됐다"며 "이론과 실제, 신학과 현장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갖춘 유능한 원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본교의 교역학 석사 원목과정 졸업 후 의료 분야의 돌봄 전문 목회자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사역하실 수 있다"며 "미주장신대의 최첨단 IT 기반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위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역학 석사 원목과정 입학원서 접수 마감은 8월 14일까지며 학기 시작은 8월 28일부터다. 이번 가을학기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 입학금(admission fee)과 서류 전형료(application fee)가 면제된다. 선교사 및 목회자 지원 장학금 외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도 마련된다. 관련문의는 이메일 rbkim@ptsa.edu 김루빈 교수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북미기독교개혁교단, 동성애 반대 공식화...총회서 69% '찬성'



미시간주 그랜드피즈에 위치한 북미기독교개혁교단 총회 본부. ©북미기독교개혁교단 커뮤니케이션스

북미기독교개혁교회(CRCNA)가 성 윤리, 특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역사적 입장이 "신앙고백적 지위"를 가진다고 공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북미기독교개혁교회 월간지인 '더 베너'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북미기독교개혁교회 대의원 중 69%가 '부정한 행실(unchastity)'에 동성애 행위를 포함시키는 데 찬성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켈빈대학교에서 열린 북미기독교개혁교회 시노드 기간에 이뤄졌다. 이 교단은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1000개 이상의 교회와 23만 명의 이상의 교인이 속해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처음 작성되어 1619년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승인된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개신교 신앙고백이다.

투표에 앞서 대의원의 74%는 'CRC 교회에 대한 인간 성 보고서'를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지닌 유용한 요약"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 보고서는 동성애 행위가 성경적 정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교단의 전통적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동성애 반대 입장을 신앙고백적 지위로 격상시키에 따라, 신조와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는 목회자나 교수진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참석한

대의원인 앤서니 엘린바스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회의장에 있는 인원의 3분의 1은 특별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켈빈대학교 전임 총장인 마이클 르로이도 "1973년 이후 (동성애 행위가 죄라는 교회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있었다"라며 "(교단 입장에) 반대 글이나 연설을 한 공직자들에게 교회의 징계 사유가 생길 것이다. 교회 임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켈빈대학교 학생회는 자신을 포괄적 성소수자인 '퀴어(Queer)'라고 밝힌 양성애자 학생을 학생회장에 최초로 선출한 바 있다.

미국 개신교 교단 가운데 성 윤리를 둘러싼 의견 대립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왔다. 지난 5월 미국 메노나이트교회(Mennonite Church USA)는 미주리주 캔자스 티에서 열린 교단 총회 특별회의에서 목회자들 및 교인들의 동성 결혼을 금지해 온 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의안은 대의원 찬성 404, 반대 84, 기권 3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 동성애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의도와 상관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손상, 파괴하는 경우"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는데 합의했다. 이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메노나이트교회가 '동성애 공존'으로 선회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김유진 기자

기독교 기업 칩필레, 소비자만족도지수 '8년 연속' 1위

미국의 기독교 기업 칩필레(Chick-fil-A)가 고객만족도지수(ACSI)에서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21~2022 소비자만족도지수 조사에서 칩필레(Chick-Fil-A)는 8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패스트푸드 등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무작위로 선택된 2만 명 이상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고, 그 결과 칩필레가 여전히 패스트푸드 산업의 강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칩필레의 ACSI 지수는 작년과 동일한 83점(100점 만점)으로 1위였다. 맥도날드는 3% 하락한 68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미 존스(Jimmy John's)는 79점으로 다른 소규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들과 공동 2위를 차지했으며, 도미노 피자(3% 하락)와 KFC(1% 하락)가 각각 78점으로 뒤를 이었다.

칩필레는 롱혼 스테이크 하우스(Longhorn Steakhouse), 텍사스 로드 하우스(Texas Roadhouse), 크래커배럴(Cracker Barrel) 및 TGI 프라이데이(TGI Friday)와 같은 높은 순위의 패밀리 레스토랑들도 제쳤다. 강혜진 기자

출판 감사예배 및 북 콘서트 초청합니다

강태광 목사의 신간 기독교 문학 산책



일시: 2022년 7월 24일(오후 2시 40분~5시 40분)
장소: Cafe니모(Nimo) 1032 Crenshaw Blvd, LA, CA 90019

1부: 출판 감사 예배(2:40~3:10)

- 사회: 김은목 목사 (평화 교회)
- 설교: 광건섭 목사 (예은교회)
- 축도: 한기형 목사 (미주CSBTV 대표)

*Entracte(1): 인사, 낭송, 책 소개

2부: 선교지 위한 기도회(3:40~4:10)

- 사회: 강승영 목사 (전 JAMA 대표)
- 말씀: 송정명 목사 (미주성서회공동대표회장)

*Entracte(2): 인사, 1분 인문학 특강, 낭송

3부: 북 콘서트(5:00~5:40)

- 사회: 안신기 목사 (한사랑 교회)
- 말씀: 박광철 목사 (솔트하우스선교회 대표)
- 축사: 임영호 목사 (기독교인회장)

*Afterward: 인사, 1분 인문학 특강, 낭송

주한 미 대사에 동성애자로 알려진 필립 골드버그 임명

반동연 등 단체들,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서 규탄 기자회견

미국이 동성애자로 알려진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주한 미 대사로 임명한 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는 10일 부임할 예정이다.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여러 단체들은 8일 오전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지금껏 동성애에 대해 반대해온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매년 반복되는 주한 미대사관 무지개현수막 게시 및 동성애퀴어축제 행사장 내 부스 설치로 인해서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이는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의 타락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



미국이 동성애자로 알려진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8일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동연 제공

아울러, 한국인을 무시하는 문화 제국주의적 시각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미국은 역사적으로 미국인의 시각에서만 대외정책을 펴다 실패한 사례가 여러 번”이라며 “최근 일련의 동성애 관련 외교정책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배척을 자초하는 미국의 고립주의를 보는 듯해 우려스럽

다”고 했다.

이들은 “바이든 정부의 동성애자 대사 임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 곧 골드버그 대사가 동성 파트너를 대동하고 한국에 부임하게 되면 첨예한 논쟁이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해 발생한 한미동맹 정진 훼손 및 미국에 대한 반감 등 모든 부정적 결

과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과거 선조들의 기독교 신앙 유산을 짓밟지 말고 성경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 이들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3의 성’을 당연시하고 권장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미국은 미국의 기독교 역사 전통에 어긋나는 잘못에서 돌이켜야 하며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국의 문화를 외국에 강제적으로 이식하려는 제국주의적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며 “그 길이 진정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만행은 반미주의자들에게 오히려 빌미를 줄 뿐이며, 미국에 우호적인 한국인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기에 (골드버그 대사 임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기감 이동환 목사 항소심 재판, 무기한 휴정

8일 열린 3차 재판서 결정... '재판위 구성 요건 불충족'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행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감회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이 결국 무기한 휴정됐다.

8일 열린 3차 재판에는 피상소인 측에서 경기연회자격심사위원장 김문조 목사를 대리해 박성제 변호사, 경기연회심사위원장 진인문 목사와 서기 김기태 장로, 보조참가인 김용신 목사 외 3인이 참석했다. 상소인 측은 이동환 목사와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 외 2인, 보조참가인 송병구 목사 외 3인이 참석했다.

총회 재판위원회(총재위) 1반 주재로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감리교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피상소인 측은 재판 시작부터 재판위원의 구성 요건을 문제 삼았다. 피상소인 측 주장에 따르면, 총재위 1반이 재판위원 총 6명 만으로 이 목사의 항소심을 진행해온 것은 교리와장정이 규정한 '총회 재판 성립 요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기감 헌법인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1절 총칙 [1430단] 제30조 8항은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7명 중에서 대치한다'고 규정했다.

지난달 27일 항소심 2차 재판은 당시 재판위원 1명이 불참한 채 총 5명으로 진행되

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 3차 재판에는 총회 재판위원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왜 지금에서야 재판구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지”를 피상소인 측에 묻기도 했다.

이에 피상소인 측 변호인단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원래 재판위원 6인으로 구성된 재판을 받으려다, 지난달 27일 5인으로 진행됐던 항소심 재판 당시 불참한 재판위원이 회피 신청을 낸 줄 알았지만 이후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에 교리와장정에서 재판구성 요건이 뒤늦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피상소인 측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 진인문 목사는 “지금까지 재판위원 6인으로 잘 진행해보려고도 했다”며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난 후 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상소인 측 한 목회자는 “인간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법적 절차의 완벽한 공정을 기대하기엔 어렵다”며 “재심 절차도 있으니 재판위원 6인으로 그대로 진행하자”고 재판 속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피상소인 측 김용신 목사(기쁨의교회)는 “이런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넘어가자는 말은 재판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재판 구성 자체가 흠결 사항이기에 중재해야 한다”며 피상소인 측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재판은 무기한 휴정에 돌입했다. 향후 재판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노형구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4년 8개월 만에 첫 '외부 설교'

7일 예정 통합 전장연 수련회 저녁집회 강사로 나서

김하나 목사가 지난 2017년 11월 명성교회로 부임한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부 집회 강사로 섰다.

김 목사는 예정 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전장연)가 6~8일 더케이경주호텔에서 '주여 화목하게 하소서'(고후 5:17~19)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8회 전국장로수련회 일정 중 7일 저녁집회에서 '화복에 이르는 길, 사랑과 기도'(마 5:43~48)라는 제목으로 40여 분간 설교했다.

김 목사는 “교회는 화목해야 한다. 화목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저는 나이도 아직 어리고 교회도 잘 모르는 초짜 목사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있다. 싸우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화목한 교회는 작은 교회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함께 힘을 합치면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며 “장로님들께서 '화목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세우셨을 때 하

나눔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연례 행사인 전장연 수련회는 교단 내 집회들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엔 최대 약 4천 명의 장도들이 참석했고, 이번엔 3천 명 정도가 모였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김 목사가 설교하는 내내 장내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설교 내용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긍정적이었다고. 일부 소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실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이전까지 명성교회 안에서만 설교해 왔다. 교계에선 이를 두고 김 목사가 그와 관련된 소위 '세습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고 추정했다. 김 목사가 이번 전장연 수련회 강사로 서게 된 것은 전장연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난 1월 26일 판결했다. 이후 명성교회 측이 항소했고, 곧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번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제10차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대회, 한국 분당 지구총교회서 개최

9월 5-7일, 22개국 65개 총회들 참여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회들의 축제인 제10차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대회(Asia Pacific Baptist Federation, 이하 APBF)가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Stronger Together'를 주제로 분당 지구총교회(담임 최성은 목사)과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APB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국 65개 침례교 총회들과 3만 3천여 교회로 구성돼 있으며, 선교와 전도의 뜻을 모아 서로 협력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리는 국제행사다. 지난 2017년 9차 대회는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Yogyakarta)에서 개최됐으며, 한국 개최는 처음이다.

올해는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고명진 목사)에서 주관하게 된다. 대회 준비위원장은 경증총회장 유관재 목사(성광침례교회)가 맡았다. 기침 총회는 지난 3월 15일 한국침신대에서 준비위원회 헌신예배를 가진 후 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지난 5월 점검차 APBF 에드윈 램 총회장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제10차 APBF 한국대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국제 선교대회이기 때문이다.

대회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침례교 지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세계 선교를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2024년 한국에서 열릴 로잔 선교대회에 앞서, 선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APBF 총회장 에드윈 램(Edwin Lam, 싱가포르) 목사, 세계침례교 연맹(BWA) 사무총장 일라이자 브라운(Elijah Brown) 박사, 지구총교회 최성은 목사, 오키나와 Elon318 커뮤니티 교회 아이 노하라 테즈오(Ai Nohara Tetseo) 목사, 호주침례교 세계구호단체 대표 멜리사 리프셋(Melissa Lipsett)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지구총교회 방송팀은 영어로 진행되는 모든 집회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힌디어, 태국어, 버마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등 8개 국어로 송출해 APBF에 속한 3만 3천여 개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대회 장소를 제공한 지구총교회는 최성은



지난 2017년 9회 대회 모습. ©APBF

목사는 "Stronger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0차 APBF 한국대회는 현대 선교의 흐름이 해안 선교에서 내륙 선교,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에 이어 협력 선교(Cooperative Mission)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 선교의 중심점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3억 아시아 선교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침례교단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역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용 기자

군복무 중 동성 장교와 성행위 했던 A씨, 2심서도 무죄

군복무 중 동성 장교와 수차례 성행위를 했던 전직 장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3일 군인간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 까지 타 부대 소속 중위 B씨와 합의 하에 6차례 동성간 성관계 등을 가져 군형법 제92조6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위 조항은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으로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항문성교 등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른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성행위의 경우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범의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25년 동안 장교로 복무한 예비역 중령 김명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 예자연 사무총장)는 "서울북부지법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이번 2심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며 "군대에서 상급 장교가 하급장교에게 '위력'으로 행한 동성간 성폭행도 상급자 명령에 따라 '상호간 합의'로 둔갑돼, 얼마든지 하급자의 피해호소를 입막음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군인 간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조항은 군대에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위력에 의한 동성간성폭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제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A와 B씨의 동성간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해도, 이를 성적자기 결정권으로 인정할 경우 군대 조직의 특수성과도 부합하지 않는 인권 개념으로, 자칫 군 기강을 헤이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를 저해할까봐 매우 우려가 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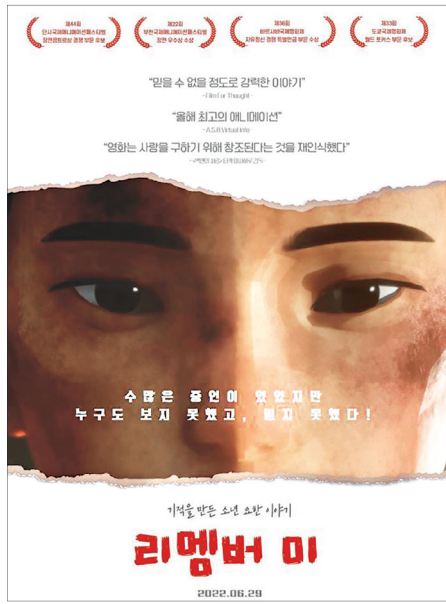
“메리 퀴어’ 방송하는 웨이브와 SKT, 동성애가 로맨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동성애자들의 동거와 트랜스젠더 이야기를 방송하겠다고 밝힌 OTT 웨이브(wavve) 모기업인 SKT를 규탄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방송에서 동성애를 로맨스라고 미화해도 되는가? 제작과 송출에 SKT와 지상파 3사 (KBS, MBC, SBS) 가 합작이라니'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메리 퀴어'라는 프로그램은 7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동성애자들의 동거 이야기, 트랜스젠더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남의 연애'에서는 동성애자 남성들이 한 집에 입주해 연애 상대를 찾는 데이팅 프로그램 형식"이라며 "동성애에 관한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방송된다는 것은 곧 동성애를 보편화하는 것이고, 특히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파급효과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든 PD도 '성소수자들의 환경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들의 생생한 삶 자체를 보여줘야 한다'며 동성애 긍정을 극대화할 목적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용 기자

각종 시상식 휩쓴 애니 영화 '리멤버 미', 北 정치범수용소 다뤄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리멤버 미'가 오는 29일 개봉한다.

10년의 준비 과정을 거친 '리멤버 미'는 실제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모든 것을 잊아간 절망의 땅 북한에서 어느날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소년 '요한'이 다시 삶의 희망의 조각을 찾기 위한 여정을 그린다.

'리멤버 미'는 세계 4대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중 하나로, 애니메이션의 칸 영화제라 불리는 제44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경쟁 초청을 시작으로 제22회 부산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장편우수상을 수상, 제36회 바르샤바국제영화제 자유정신 경쟁 특별 언급 부문 수상하고, 제33회 도쿄국제영화제 월드 포커스 부문 후보에 올랐다.

제일교포 4세 시미즈 에이지 한 감독은 탈북민이 쓴 책을 읽고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그 참상을 알리기 위해 영화 제작을 결심했다고 한다. 감독은 직접 탈북민을 만나 취재하며 생생한 증언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를 완성했다.

시미즈 에이지 한 감독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에 초점을 맞춰 제작했다"고 밝혔다. 김신의 기자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 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2022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ABHE, 목회학사(M.Div.), 상담학박사, 선교학박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발급 가능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박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 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연락문의 ☎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a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동성혼 케이크 제작 거부’ 기독교인 부부, 새 상점 낸다

자금 마련 위해 온라인 모금 중

동성결혼식에 사용될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13만 5천 달러(약 1억 7,35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제과점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애런과 멜리사 클레인(Aaron and Melissa Klein) 부부가 새로운 상점을 열기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멜리사 클레인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제과점 문을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다. 내가 오리건에서 제과점을 한 지 10년이 지났고, 나의 소중한 고객들도 너무나 그림자”고 했다.

이어 “몬타나에 나온 레스토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 5만 달러(약 6,430만 원)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이곳이 ‘스윗 케이크’ 제과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금 마련을 위해 쿠키도 판매 중이며, 현재까지 약 1만 7000달러(약 2,186만 원)를 모금했다.



아론과 멜리사 부부. ©美가족연구위원회 ©크리스천포스트

멜리사 클레인은 CNB 뉴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새로운 제과점에서 친구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아침 또는 점심을 먹거나 달달한 것들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 누구든지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주

는 곳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리건주 그리섬에서 ‘멜리사의 스윗케이크’(Melissa’s Sweetcakes)를 운영 중이던 클라인(Aaron & Melissa Klein) 부부는 지

난 2013년 신앙적 양심에 따라 레즈비언인 바우먼-사이어(Bowman-Cyer)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 제작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두 사람은 클라인 부부를 오리건주 노동산업국에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오리건주는 이들 부부가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2016년 항소했으나 법원은 오리건주의 손을 들어 줬고, 이에 두 사람은 2018년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9년 6월 대법원은 클라인 부부에 대한 판결에 파기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주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항소법원은 2022년 ‘마스터피스 제과점 대 콜로라도 민권위원회’ 사건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클라인 부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동성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부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부가 운영하는 제과점이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전의 판결은 지지했다.

강혜진 기자

트럼프, 미 낙태권 폐기 판결에 “하나님이 하셨다”



재임 시절 세인트존스교회 앞에서 성경을 들어보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 ©NBC 뉴스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해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결국 모두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모든 것을 원래 속해 있던 상태로 되돌린다”라고 덧붙였다.

임신 15주 이상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안의 위헌 여부를 다룬 ‘둡스 대 잭슨여성건강기구’ 재판에서 대법원은 6-3으로 이 법안을 지지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 클라렌스 토마스,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이 함께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같은 의견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행동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나는 급진좌파 민주당원, 가짜뉴스 미디어의 파트너, 진실한 척 하지만 침묵하는 민중의 적인 ‘이름만 공화당원’(RINO)에게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낙태에 대한 국가적 금지를 촉구했다.

펜스 부통령은 브레이트바트의 인터뷰에서 “미 국민들에게 삶의 새로운 시작을 제공했다”며 “대법관들의 용기있는 확신에 대해 칭찬한다”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낙태 문제를 주와 국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대법원은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고 미 국민이 자신의 가치와 열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스스로를 통치할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태아와 위기에 처한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모든 주에 집중되어 있다. 생명에 대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이 땅의 모든 주에서 생명의 신성함이 미국 법의 중심으로 회복될 때까지 쉬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美의 가장 큰 위협, ‘내 편 아니면 침묵’ 문화의 지배”

미국의 저명한 종교 자유 수호 단체가 “미국과 전 세계의 종교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침묵시켜도 된다’고 여기는 문화의 지배”라고 강조했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의 마이클 패리스(Michael Farris) 대표는 6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Summit)에 앞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 인터뷰를 갖고 국내외 종교 자유의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패널로 참석한 패리스 대표는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침묵시키고 자신의 경력을 단절시키려는 시도를 당하는 입장이고, 공공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내놓을 능력조차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침묵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오크’(woke) 문화의 지배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여러 면에서 매우 위협하다”고 경고했다.

패리스 대표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미국과 동일하다. 특히 우오크 문화의 제국주의다. 이 문화의 배후에 있는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다른 나라의 지배적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결과에 직면하는 일이 세계의 너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미국에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작고, 목소리가 매우 크며, 매우 사악한 소수자”라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균중 폭력을 당해선



동성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수년간 소송에 휘말렸던, 콜로라도의 제빵사 잭 필립스. ©자유수호연맹 제공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큰 중도를 깨우고 일으키는 일은 이 같은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패리스 대표는 올해 초 자신의 동료 중 한 명인 크리스틴 와고너(Kristen Wagoner) ADF 법률고문이 예일대 법대생들을 상대로 연설할 때 무리들이 그녀를 역사시키려 했던 일도 회상했다.

그는 “성, 젠더, 낙태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가진 기독교인들은 광장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나 공립학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환경이다. 기독교인으로서 당신의 견해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처벌이 따른다”고 했다.

이어 “좋은 소식은 우리가 법정의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문화가 상당히 압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의 공극적인 승리는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공립학교가 ‘문화적인 우오크 아젠다’와 비판 이론의 교리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요인에 따른 트랜스젠더 발생률을 급증시킨 책임이 있다”며 “너무 많은 아이들이 백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억압자가 되고, 억압자나 악당으로 낙인찍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소수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ADF는 부모의 권리와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부모를 대변해 왔다. 그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돌이킨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성적 혼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부모를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혜진 기자

‘206년 역사’ 美 감리교회, 코로나19로 교인 수 줄어 폐쇄

매사추세츠주 사우스윅에서 206년의 역사를 이어온 감리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교인 수가 줄어들면서 폐쇄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합감리회 그리스도교회(Christ Church UMC)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름도 바꾸고 시설 및 교인들의 변화도 견뎌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교인 수가 줄어들자, 교인들은 교회를 7월 1일 영구적으로 해산하기로 결의했고, 담임 목사도 은퇴하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했다.

최근 열린 교회의 마지막 공식 예배에서 켄 블랜차드(Ken Blanchard) 목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인 우리 교회가 해산하고 이 건물을 떠날 때가 왔다”며 “이곳은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섬겨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드린 이곳을 떠나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목회 사역에 대한 작별 인사”라고 전했다.

1816년에 8명으로 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 가정과 지역 학교에서 교인들이 모여 들었다. 설교는 또한 ‘순회 기수’로 알려진



연합감리회 그리스도교회(Christ Church UMC). ©구글맵

감리교 목사들이 전했는데, 웹사이트에 게재된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수년에 걸쳐 지역사회의 규모가 커졌고, 교회는 가족들의 중요한 이정표를 수없이 목격해 왔다.

마지막 예배에 참석한 약 30명의 성도들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나눠준 캐롤 존스는 매스라이브(Mass Live)와의 인터뷰에서 “난 교회와 관계가 깊다.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재정을 언니가 40년 동안, 이후 내

가 10년 동안 맡았다”며 “청년들이 모두 이사를 갔을 때 끝이 온다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그들은 이사를 갔고, 내 나이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교회 관계자들은 교회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며 “2019년 무렵, 우리가 ‘시대의 끝’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수적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교인들은 2019년까지 우리가 예전에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2022년 7월 1일 교회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인인 캐롤 로케(Carol Locke)는 22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했다. 그녀는 “교회의 수익 창출 활동 중 많은 부분에서 젊은이들이 필요한데, 그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우리는 아주 오래된 교회다. 우리 중 대부분은 80세가 넘었고, 저녁 식사 모임, 공예품 박람회 등의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교회는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불행히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NOW OFFERING

IB PYP(K~5TH) • MYP(6TH~10TH)
DP(11TH~12TH)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C



Now Enrolling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Est.1999

e-nca.org

파키스탄 선교하다 IS에 참수된 두 중국인들, '순교자' 로



파키스탄에서 순교한 중국인 선교사 리신형(왼쪽)과 멩리시(오른쪽). ©Weibo

한국 순교자의 소리, '연대표'에 명판 추가... "외국서 순교한 첫 중국인"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한국VOM)는 29일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맞아 서울 정릉동에 위치한 한국VOM 사무실에 있는 '순교자 연대표'에 중국인 순교자 멩리시(Meng Lisi)와 리신형(Le Xinheng)의 명판을 추가하며 그들의 순교를 기념했다.

한국VOM 공동대표인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멍리시와 리신형은 외국 땅에서 순교한 첫 중국인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두 순교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말하고,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멍리시와 리신형은 지난 2017년 5월 24일 오후 1시 10분, 파키스탄 퀘타시(Quetta)의 한 어학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후 거리에서 IS에 차량으로 납치돼 2주 뒤인 6월 8일 참수당했다. 26세의 멩리시는 후베이성, 24세의 리신형은 후난성 출신이다.

한국VOM은 지난 2년 동안 중국과 파키스탄을 방문해 납치된 현장에 가 보고, 목격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류를 조사하고 세부사항을 기록하는 등 이들의 이야기를 검증했다.

강혜진 기자

에릭 폴리 목사는 "사건을 조사한 우리는, 알려진 것처럼 두 사람이 세뇌를 당하거나 속거나 유인을 당해 아무것도 모르고 파키스탄에 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들은 선교를 떠나기 훨씬 전부터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겼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멩리시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어린이들을 사랑했고, 파키스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소명을 갖게 됐다. 이후 '화중사범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네크워크 칼리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후, 우한에서 파키스탄 공용어인 우르두어를 공부할 계획이었다.

리신형은 '시안 전자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하고, 재학 중에는 학생회 활동을 했다. 졸업 후 그는 저장성 선교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아랍어·아랍어·영어, 그리고 우르두어로 복음을 전하는 법도 배웠다.

에릭 폴리 목사는 "멍리시와 리신형은 부모는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이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었다. 점차적으로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과, 파키스탄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다. 멩리시와 리신형의 선교 비전은 특정 선교단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영 침례교연맹, 목회자 동성결혼 허용 여부 검토 중



©Unsplash

영국침례교연맹(BUGB)이 목회자들의 동성결혼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BUGB 목회자들의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목회자 승인규정 부록3 섹션 4.3은 성적 비평에 대해 "결혼 외 기타 성행위(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정의됨)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독점적으로 정의되는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해당 조항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CT는 전했다.

요청은 대부분이 목회자인 BUGB 회원 70명이 서명한 서한에서 이루어졌다.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BUGB는 목회자에 대한 규정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한 전국적인 검토과정에 들어갔다.

이 요청이 승인되면 동성결혼한 목회자는 더 이상 중대한 위법을 행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자격이 박탈되지 않게 된다. BUGB 사무총장인 린 그린(Lynn Green) 목사는 "평의회는 가능한 변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침례교 운동 전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질문을 고려하고 응답하는 과정을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BUGB 지도부는 요청에 대한 결정의 정확한 기한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린 목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토 과정에서 '겸손'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핵심지도자 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치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통일을 함께 견지하기 위한 우리의 절대적인 헌신에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때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려지는 모든 결정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분별되어야 하며 상당한 협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다양한 가능한 선택지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희 담임목사 OC재물 주일 예배 오전 9:00 주일 예배 오후 1:00 주일 유아예배 오후 10:30 주일 중/영아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회 저녁 7:45 새벽기도 회공교도회 주일 오전 6:00 15914 Perado St., Northridge, CA 91321, 818583-8887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2:00 유순고등부예 오전 8:40	이훈민 담임목사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7: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7:30 유순고등부예 오전 8:4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7: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7:30 신기대순회 오전 10:20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이충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셨어이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영/중/말/한/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전 1:30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김한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천왕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949)380-7777 / www.lagunamc.org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 854-4010 / F.(949) 854-4018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박신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오렌지카운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714) 446-6200 / F.(714) 446-6207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성경말씀: 매일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714) 525-0191 / www.ebsccal.com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성경말씀: 매일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박광철 목사의 영적 성숙

“영적 성숙은 무엇인가?”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젓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 5:12-14).



박 광 철 목사
솔트하우스선교회 대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2-14).

위에 언급한 몇 구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자라고 성숙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주를 믿은 지 오래 되어서 이제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여 믿음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영적인 성숙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은사가 풍성한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젓과 같은 영적 음식을 먹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불리우는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는 아직도 주님이 세우신 꾀대에 이르지 못하여 여전히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성숙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그래도 꾀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곧 영적 성숙인 것이다.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부도덕과 부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되는 이 시대에는 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적인 미숙아보다 성숙하여 남을 돌보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요구된다. 복음 전도를 받고 거듭나는 놀라운 영적 열매도 중요하

지만 그들은 갓 태어난 아이와 같아서 피동적이며 모든 면에서 도움 받아야 한다. 이제는 교회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더 필요하다. 비단 교회만 아니라 정계와 교육계, 문학계, 예술계, 스포츠계에도 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죄와 불의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한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젓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 5:12-14).

영적 성숙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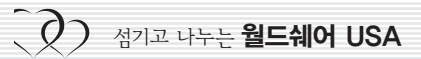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5).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딤후 4:15).

영적 성숙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또한 영적 성숙에 관한 정의는 수 없이 많다.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대부분이 영적 성숙에 대한 여러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여 공통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지 상고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 6:1-3).

■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안톤 체호프의 “우유부단한 사람”

가난한 가정교사의 월급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서재에서 가정교사와 같이 앉아서 월급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계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교사가 생각하는 월급과 주인이 기억하는 월급이 다릅니다. 가정교사는 한 달에 40루블로 기억하는데 주인은 30루블이라고 우깁니다. 장부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주인은 강변합니다. 주인이 강변에 가정교사는 마지못해 수긍을 합니다. 변변한 저항도 못합니다.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날짜 계산이 다릅니다. 가정교사는 두 달 닷새 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장부를 내밉니다. 장부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두 달간에 있었던 9번의 일요일을 빼줍니다. 그리고 휴일이라 공부하지 않았던 세 번의 휴일도 빼줍니다. 그러니 가정교사 월급을 줄 날짜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주인은 거침이 없습니다. 가정교사는 말도 안 되는 주인의 논리에 당황해 얼굴을 붉힙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주인의 날짜 계산은 계속됩니다. 가정교사가 치통이 있어서 공부를 못한 날들이 3일이었습니다. 그 3일도 제합니다. 심지어 주인의 딸 즉 학생이 아파서 공부 못한 날들도 계산에서 빼줍니다. 가정교사는 80루블 이상을 기대했었는데 41루블 밖에 안 됩니다. 가난한 가정교사는 눈이 충혈 되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턱이 떨리고 신경질적으로 기침을 했고, 코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계산은 계속됩니다. 가정교사가 신년에 찾잔을 깨뜨린 것을 들추며 또 2루블을 제합니다. 그리고 딸이 나무에 올라갔다 가 딸의 코트가 찢어진 것도 선생님의 감독 소홀로 책임을 돌리며 또 10루블을 제합니다. 하녀가 딸의 신발을 훔친 것도 문제 삼습니다. 가정교사에게 돈을 주면서 고운한 것이니 딸의 모든 것을 보살피고 지켜봐야 한다며 책임을 물어 또 5루블을 제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 가정교사의 월급은 형편 없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잔인한 계산은 계속

됩니다. 일월 구일에 가정교사가 10루블을 빌려 갔다고 주장합니다. 가정교사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니 장부를 보이며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교사는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적혀 있다는 말에 얼버무리며 말하지 못합니다. 주인은 “41루블에서 다시 27루블을 제하면 14 루블만 남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어처구니없지만 가정교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주인의 이 말에 가정교사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입니다. 길고 아름다운 코에 따미 솟아났습니다. 당황한 가정교사는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 한번 밖에 빌리지 않았습니니다. 3루블을 한번 빌렸습니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 제가 잊고 있었군요. 그것도 제합니다.’ 하며 3루블을 또 빼줍니다. 주인의 악랄한 계산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제하고 나니 11루블이 남습니다. 주인이 11루블을 챙겨 두 달 월급이라고 가정교사에게 건네줍니다. 그 돈을 떨리는 손으로 받은 가정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메르시(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정색하며 “대체 뭐가 감사하단 말이요?” 주인이 묻습니다. 이에 불쌍한 가정교사가 말합니다. “돈을 주셔서...” 기가 막힌 주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의 돈을 거의 빼앗고 강탈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소. 젠장! 나는 당신의 돈을 훔쳤단 말이오! 대체 뭐가 메르시란 말이오?” 주인이 말을 듣고 있던 가정교사가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다른 곳에 서는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당연히 그랬겠지요! (지금처럼 말하면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필자삽입) 당신에게 혹독한 교훈을 주기 위해 장난

을 좀 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당신이 받아야 할 80루블의 봉투를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80루블을 드릴 것입니다.”

주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왜 내게 대항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제대로 할 말을 못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유부단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주인의 말에 가정교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주인은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혹독한 장난을 친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녀에게 두 달간의 가정교사 월급 80루블을 건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맙다고 말하며 주인 앞을 떠났습니다. 가정교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떠난 것입니다.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는 쉽구나!’

이상은 단편의 거장 체호프의 단편소설 <우유부단한 사람>의 줄거리입니다. 체호프는 의사 작가입니다. 그는 ‘의학은 나의 아내요, 문학은 나의 애인이다.’라고 말하며 두 분야에 충실했지만, 그는 주로 작가로 살았습니다. 16세 때 아버지가 파산하여, 유머러스한 단편들을 잡지나 신문사 등에 기고하여 받은 원고료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의대생 시절 용돈을 위해 글을 썼고, 그 후 수많은 단편 작품을 남긴 성공적인 작가입니다.

안톤 체호프는 힘을 가진 “갑”들이 악하게 “갑질”하는 것을 통렬하게 고발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처럼 말도 안 되게 갑질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갑’들의 악함을 고발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을’들의 비겁함과 소심함도 고발합니다.

작품의 메시지처럼 ‘을’들이 말해야 합니다. ‘을’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작가는 화자의 입을 빌려 말합니다. “왜 저항하지 않습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저항했던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정의감과 저항정신이 자유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공무원의 월북 논란을 보면서 그 가족들의 정의감과 저항정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2022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온캠퍼스, 라이브 ZOOM, 녹화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계에서 수강 가능

수강신청기간 | 8.1-8.5
개강일 | 8.29

- 본교 학위과정**
- | 학사과정(신학/사회복지학/글로벌경영학/가정상담학)
 - | 석사과정(교역학/교역학 원목과정/상담심리학/선교학/결혼과 가족 치료)
 - | 박사과정(선교학/선교학철학)
 - | *교육학 학사, 전문코칭학 석사 과정(2022년 가을학기 개설 예정)

- 본교의 비전과 특징**
- | 선교적 영성과 목회로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는 신학교
 - | 이론과 실제, 전공 분야와 현장 경험을 통합하는 역량을 갖춘 교수진
 - | Cal Grant와 Pell Grant 학자금 지원
 - | 현역 및 재향 군인 학자금 및 재정 지원
 - | 효율적 플랫폼과 양질의 신학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
 - |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혜택(특히 목사, 선교사 장학금 지원)

유학생 환영 1-20 발행

Tel. 562.926.1023
Fax. 562.926.1025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전쟁과 치유를 통한 선교확장(2)

열왕기하 5:1-14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2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4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리이러하더이다 5 아람 왕이 가로되 같지어다...(중략)...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 다메섹 강 아마다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13 그 종들이 나아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가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 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람 왕은 각종 선물을 싣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하늘이 무너짐을 느낍니다. 필시 이 편지를 구실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사환을 왕에게 보내어 군대장관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일행은 엘리사의 처소를 향하여 갑니다.

엘리사에게 도착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의 몸에 손을 얹거나 무슨 주술을 통하여 자신을 낫게 해줄 것이며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 예우(禮遇)하고 후대(厚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히려 몸종을 내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고 전하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 엘리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강 아마다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며 화를 내며 떠나려합니다. 이때 그 종들이 나아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 하여도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행하지 않았겠냐고 권유합니다. 종들의 간청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위세를 과

시하거나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 온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살펴 볼 수 있을 때 겸손해집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과장하고 치장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허수아비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았던 나아만 장군도 이제 겸손하여져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몸을 일곱 번 씻으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 졌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도 구원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길들이기도 하고 질병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쟁과 난리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는 것은 오천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등소평이 시작한 시장경제 체제로 인해 경제적 혜택을 맞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은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게 된다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와 한편이 되어 북에 맞서게 될 때 중국의 입장은 난감해집니다. 그 전쟁에 가담하자니 중국경제가 다시 후퇴하게 될 것이고 못본척하자니 앞으로의 중국의 위상이 추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진리위에 바로서고 성령이 충만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수로 선교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잘못될 때 문둥이 격으로 쓰이기 위한 아람나라도 왓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문둥이가 없어질까봐 나아만 장군을 붙들어 쓰심으로 왓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크고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했을 때 거부했다면 문둥병으로 망해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가 겸손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해내시는 체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들도 혹 교만함으로 자신들의 알맹이는 썩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허세로운 치장거리로 과장(過裝)을 하거나 가장(假裝)을 해서 안됩니다. 자기의 껍질을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直視)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지옥 길에 내려앉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복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구원해내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아만 장군이 왜 문둥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20절부터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되돌아와서 아람 왕이 챙겨준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엘리사는 절대로 고사(固辭)했습니다.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지 자신이 아니며 역사적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소국이 되어 강대국이 된 아람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착취와 압제가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람나라를 지배하고 계시고 전세계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람 왕과 그 백성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사환이 속물근성으로 말미암아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와 사임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왕하5:20)’하고는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왕하5:22)”며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그가 바라던 것의 두 배를 쥐서 돌려보냅니다.

게하시는 이것을 자신의 집에 감추고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하시는 엘리사는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대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을 잃고 선지자의 이름을 판것은 그 선지자의 하나님을 팔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을 알고 있던 엘리사는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합니다. 게하시는 그 즉시 문둥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교만으로 우쭐대며 죄악을 일삼다가 문둥병이 걸렸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겸손히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증거로 문둥병이 낫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 그 소녀 선교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의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서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한다면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으로 승리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아 돌아왔을 때 이제는 몸종이 아닌 가장 보배로운 믿음의 딸이 되는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승리하게 하셔서 현재 건재(健在)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왜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살리시는가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교하는 복음의 증인되어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체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라와 민족, 개개인들까지도 영적소망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계획하시고 진행, 역사하시고 계심을 깨달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만반에 알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연계 하는 선교확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방송 설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목요일 오후 10시30분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목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화요일 오후 / 금요일 오후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LA 미주 기독교방송	7시30분 /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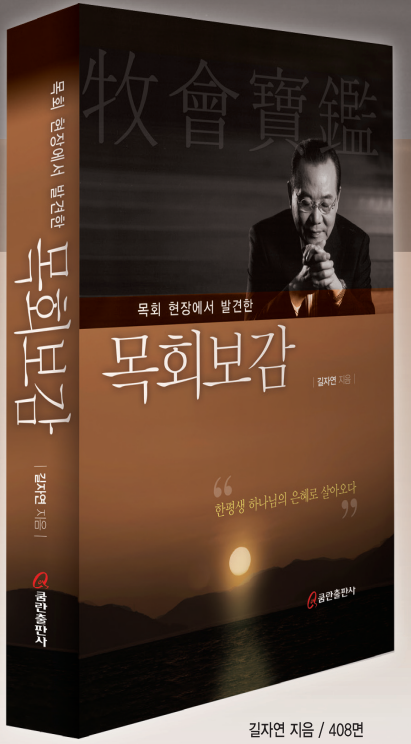
牧會寶鑑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

이 책은 부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처럼 길자연 목사의 은혜목회 회고록으로 목회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이다.

내용은 세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파트는 "나의 인생, 나의 고백"으로 가계 소개와 목회자로 소명 받은 과정이며, 제2 파트는 "나의 목회 사역"으로 영성목회와 교회부흥, 리더십, 설교 등이며, 제3 파트는 "한국교회를 향한 원로의 제안"으로 연합운동과 신학교육 현장의 사역을 통한 권면들이다.



길자연 지음 / 408면
22,000원 / 신국문 양장



목회(傳記) 길자연 목사

현역 목회자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가장 리더십이 좋은 목회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평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를 전하며 영성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 깊은 영성은 명의(名譽) 칭호를 받으신 부친과 동대문 일대 거지들에게 국밥을 끓여 대접할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모친에게서 물려받았다. 질풍노도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부친에 이어 한의대를 졸업해 개업 한의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침통을 놓고 성정을 붙잡고 탁월한 영성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있다. 왕성교회 원로목사이고, 현재는 양평에서 백한권원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산의 낙조처럼 살아가고 있다.

서울왕성교회, 과천왕성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숱한 질곡을 걸어오면서 기독교복한선교회 이사장(1984),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1991), 총회신학대 재단이사(199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1998), 개인교연합 부활주일 연합예배 대회장(1999), 영성 목회연구회 총재(199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2대 학장(2000), 기독교복한선교회 총재(200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이사장(2002), 제10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03-2004), 칼빈대학교 총장(2007-2011), 제17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10-2011), 제5대 총신대학교 총장(2013.12) 등을 역임했다.

1941년 4월 19일생으로 1964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를 졸업하였다. 2001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자랑스런 대광인상 수상(2003), 자랑스로운 목회자상 수상(2003), 서울기독대학교 명예철학박사(2004), 미국 루이지애나 벨라스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2005)를 받았다. 저서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 두고 가는 사람》, 《문제 곁에 있는 해법》, 《그난 속에 숨은 축복》, 《길자연》, 《하나님을 향한 사람 1,2》, 《여호와와의 소리》가 있다.

강준민 칼럼

자신을 이기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제가 가장 다루기 힘든 대상이 제 자신입니다. 저는 날마다 제 자신과 싸움을 합니다. 옛 자아와 싸움을 합니다. 거짓 자아와 싸움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충동적인 감정과 싸움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제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의 사이에서 싸움을 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정복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

이기에 만들고, 다른 사람을 지켜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자신을 이기는 지혜를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조금만 외부의 자극을 받아도 감정이 요동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감정이 요동칩니다. 우리 감정 속에 분노와 미움과 탐욕과 질투와 시기와 복수심과 섭섭함과 두려움과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감정을 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을 억누르게 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충동적인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감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원리 중심으로 사는 것입

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원리란 다른 말로 원칙 또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작의 법칙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감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에 가끔 감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정을 잘 다스린 후, 가능한 원리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셋째,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은 어렵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행해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행합니다. 그 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저의 시간 관리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긴급한 일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긴급한 일에도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면 나머지 일은 저절로 잘 처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직

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먼저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잘 완수해야 합니다.

넷째, 야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야심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야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야심의 동기입니다. 야심을 경계해야 하는 까닭은 야심은 많은 경우에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충고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렘 45:5, 개역한글). 야심은 우리 자신을 위해 대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대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눅 9:23). 그때 우리 옛 사람을 날마다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을 입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골 3:9).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이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속 MZ 세대 시리즈 2

MZ세대가 거하는 곳

오늘날 MZ 세대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나는 오늘도 메타버스로 출근합니다〉, 정석훈 저자는 21세기 코로나 이후, 더욱 메타버스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기업 ‘직방’은 메타버스 안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직방은 서초구에 있던 본사를 없애 버렸습니다.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 ‘메타폴리스’를 만들어 2021년 2월에 근무 형태를 원격 근무 체제(클라우드 워킹)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선웅 직방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타버스로 출근하면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상 회의 위해서만 이용하는 줌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몰입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직방의 직원들은 제주도 한 달 살거나 고향 집에 내려가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바타로 30층짜리 메타폴리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마크 저커버그는 회사 이름

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안에 사람들은 메타를 SNS 기업이 아닌 메타버스 기업으로 인식할 것이다. 메타버스는 기존 소셜 커뮤니티보다 더 풍부한 상호작용을 만드는 궁극적인 소셜 테크놀로지의 집합체이므로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울릴 수 있는 몰입형 가상 세계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텔레포트하게 될 것이다.”

MZ 세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보다 아바타로 가상 공간에서 다른 아바타를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편해합니다.

그러다 이런 가상 공간을 현실 공간처럼 느낍니다. 이 메타버스 안에서 경제활동도 하고요.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3.0〉, 홍성용 저자는 메타버스 안에서 아주 대단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메타버스 공간, 〈제페토〉에서 이

용자가 스스로 제작한 아이템이 2,500만 개가 팔렸고요. 제페토 스튜디오 이용자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도 〈제페토〉에서 라이프스타일 TV 3종을 판매했습니다. TV 3종은 수백만 원짜리 실물이 아닌 메타버스 아이템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5분 만에 준비된 수량 1만 5,000대가 다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제페토〉에 다운타운과 드라이빙 존을 구현했습니다. 이곳에서 고객들에게 쏘나타 N 라인을 시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안 시승은 사실 현실 판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핑도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370만 원짜리 가방은 5천 원, 800만 원짜리 재킷과 원피스는 7천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미래 고객인 10대들을 잡기 위해,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는 벌써 500만 켈레가 팔렸습니다. 실제 세계보다 많습니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데요. 메타버스 안에서 3만 원에 팔린 프랑

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땅 투기는 여기서도 강력합니다. 한국의 땅 값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6만 원에 중국인에게 팔린 청와대 땅은 몇 달 사이 1,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랜드마크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금액이 주요 국가들은 몇천만 원에서 억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MZ세대를 이해할 때 ‘왜 운동장에 없지?’, ‘왜 사람들을 만나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여전히 교제하고 사업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목사
품은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컬러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컬러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진유철 칼럼

욕심을 이기는 회개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시장자본주의 경제 체계를 이루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돈만 많이 벌려는 욕심이 앞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 실패와 고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자본주의의 병폐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 속에 몰아넣은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본주의가 많이 정신 차렸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욕

심은 여전합니다. 욕심을 이기는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욕심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는 차원과 방법은 우리의 수준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문제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천불을 움켜잡으려고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수백만 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채우느라 정신을 파는 사이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주님의 더 큰 축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재물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13:44) 사람들에게는 밭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기뻐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왜 자기 소유물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기뻐합니까?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히 여기던 장난감이었는데, 커서 더 좋고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면 미련도 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 천을 보고나니까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지위 혈통 학벌 배경 자기의 기득권과 권리조차도 버릴 수 있었습니니다. 진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세상 종교는 각종 고행과

수련으로 자신의 욕심과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기 전에는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며,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갈 5:24)고 말씀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를 통과하면 욕심에 대한 미련 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옛 사람의 욕심과 싸우지 말고, 철저한 회개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선순위를 이루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김한요 칼럼

꽃밭에서 일하면 꽃향기가 손에 묻듯...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손님을 집에 초대한다면 우리는 모처럼(?) 집을 청소하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청소하면 손님을 집에 초대할 효과가 특특히 드러납니다. 집이 새집처럼 정말 깨끗해집니다. 구석구석에 쌓여 있던 불필요한 물건들이 묵은 때 벗겨지듯 사라

집니다. 그러나, 급히 청소하다 보면, 끈수가 생깁니다. 손님이 오기로 약속된 시간 전에 청소가 끝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방 하나를 지정해서 모든 물건을 쓸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은 꼭 잠가야 합니다. 잠금장치가 없으면 문 앞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사인이라도 걸어 놓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처럼 열지 말아야 할 방 하나씩은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남이 들여다보면 안 되는 방, 우리의 지저분한 모습을 차마 열어보일 수 없는 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되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즉, 문을 걸어 잠궈서 남이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보여주고 싶지않

아서 문을 닫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의 골방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그 골방은 아무도 몰라도 되는 방입니다. 하나님만 알면 되는 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도 기도 집회를 잘 안 하는 한여름에, 아주 조용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베델의 성도들이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조용한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무릎 꿇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안 보일때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A.W. 토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 일반적인 생각은 사실 잘못되어 있다. 그 복음을 전할 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되는 것이 첫째 의무이다. 쇠퇴하고 변질된 기독교를 이방 나라에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무엇도 기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베델, 함께 무릎을 꿇고 섬기는 베델, 선교의 동력이 기도에서 시작되는 베델, 봉사의 능력도 얻드리며 얻는 베델, 모든 사역의 꽃을 기도의 거름 위에 피우는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꽃밭에서 일하는 일꾼의 손에는 꽃 향기가 남아 있듯이, 이번 특별 기도회에 참석한 베델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신학강좌뿐 아니라, 600회를 넘어 계속되는 아침 영상, 다가오는 큐티 세미나 및 가을 사역에도 기도 향기에 취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이 베델 정원 한가득 만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연재 '삶주님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준선교
박상원 목사

그러자 L은 갑자기 정색을 하며 말했다. “참나무는 불에 타서 숲이 되어서도 흐린

공기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네. 나 역시 참나무 숲이 헌신하는 것처럼 설사 복음을 선전하다 죽는다 해도 썩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감동이 되던지 우리 모두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L은 정말 재밌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L이 나무를 채벌하려고 채벌장에 갔다가 기도하려는데 막상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라. 이 공리 저 공리하다가 문득 복한의 여자 망나니나 하면 제격일 자신의 아내가 떠올랐다.

“하나님, 나에게 아내를 주실 바에는 하늘

에서 내려온 선녀같이 아름답고 마음이 비단결같이 예쁜 여인을 주실 것이지, 어쩌서 마음 심보는 놀부 마누라 같고 얼굴은 함지를 독차지하고 으르렁대는 돼지 같은 여자를 주셨습니까? 제 아내가 어찌나 저를 천대하는지 아주 힘이 듭니다.”

그의 아내는 L의 말대로 우람하고 건장했다. 힘은 또 얼마나 장사인지 아름드리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겉보기는 그래도 그의 아내는 복한 땅에서 보기 드문 인품을 지닌 여인이었다.

L이 웅크리고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

가 부러져서 그의 머리 위로 떨어져 순간 가 무너졌다고 한다. 마침 점심을 챙겨 온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는 그 길로 얼어 죽었을 것이다. 이후 L은 더 이상 아내에 대해 불평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L의 산골에서 보름 동안 숨어 지냈다. 그러다 도시로 돌아왔으나 다시 특수전 도전을 이끌고 전국을 순회하다 탈북하게 된 뒤로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타국에서 사역을 감당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2008년 봄에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당시 여름 학기 성경공부를 하려고 산중성경학교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중에는 L이 사는 산골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 (계속)

미주 기독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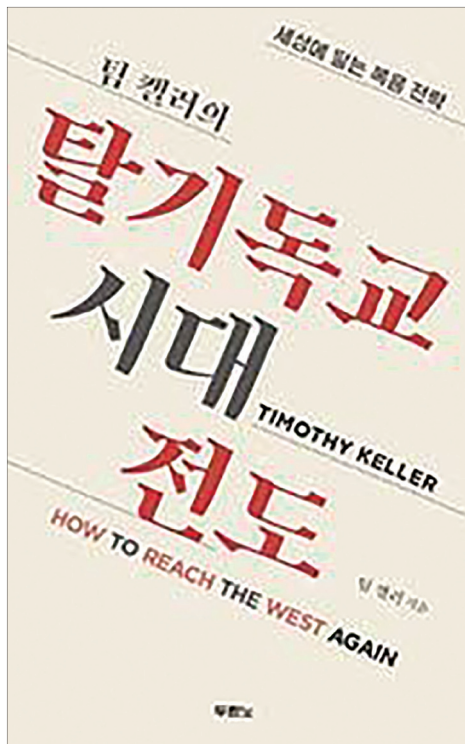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헤민병원
새 생각, 새 의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변하는 세상, 변함 없는 복음 전파하는 법

팀 켈러 “기독교에 적대적인 문화 속 복음전도”



팀 켈러의 탈기독교시대 전도
팀 켈러 저 / 장성우 역
두란노 | 140쪽

세속화시대,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희망을 말하다

기독교 신앙에 점점 더 적대감을 보이는 세대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초대 교회에서 발견한 복음 전략을 현대판으로 재현하다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시대’는 없었다. 타락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다. 교회가 기다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악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새 하늘과 새 땅)이다.

어떤 사람은 중세 시대 교회와 정부가 결탁했을 때 기독교인이 세상을 지배한 것 아니냐고 물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만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잠된 기독교의 특징은 회심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

완벽한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온갖 죄를 즐기며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는 이런 면에서 언제나 세상의 반대에 부딪혔고 세상은 언제나 탈기독교를 지향했다.

그러면 팀 켈러는 왜 그의 책 <탈기독교시대 전도>에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닿는 복음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을까?

세상이 전반적으로 탈기독교를 추구했지만, 나타난 양상은 조금씩 달랐다. 프랜시스 웨퍼가 철학과 사상에 나타난 세상의 풍조를 분석하여 설명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상은 절대 진리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을 봐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언제나 문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지, 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물론 우상숭배의 근간엔 무신론이 어떤 형태로든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모더니즘(근대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특징: 다원주의)에서 절대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신은 연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켈러는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었

다(16쪽)”고 말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설명한다면, ‘우린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반박을 듣게 될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 문화가 탈기독교 사상을 끊임 없이 가르치기 때문에 심화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취사선택하여 듣는 정보로 인해 문화는 더욱 분열되고 정치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다고 켈러는 분석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기독교에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 복음의 접점을 제대로 마련했던 초대교회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여섯 가지 현대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접점을 마련할 것인지 기본적인 요소를 제시한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26쪽).

복음의 접점을 마련하는 일은 (세상 문화를 배척하는 전략과 달리) 주변 문화와 연결점을 만들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전략과 달리) 그 문화 속에 자리한 문제를 드러내며,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전략과 달리) 사람들이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다가가는 일이다.

따라서 복음의 접점을 마련하는데 헌신된 교회는 이처럼 잘못된 전략들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모습도 갖추어야 한다. 곧 (세상 문화를 배척하는 전략이 목표하는 바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전략이 목표하는 바와 같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뿐 아니라 그들을 섬겨야 하며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전략이 목표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을 리드하되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2장에서 7장까지 켈러는 여섯 가지 핵심 쟁점을 제시한다. 관통하는 개념은 ‘복음’이다. 현대 문화를 비판하는 도구는 복음이다.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전도의 힘은 복음의 힘에 있었다.

초대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따르면서 오래된 통념을 깨부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가져온 획기적인 변화였다. 디지털 시대 세속적인 정보 홍수를 거스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복음 교리 교육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고 있는 것이 능력 있게 나타나려면,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복음에 담겨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켈러의 주장은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다(이것이 저자의 장점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에 ‘사회정의’나 ‘사회복음’ 또는 ‘과학주의’로 비판을 받는 켈러의 견해와 가르침에 실망한 독자는 그가 주변 문화와 연결점을 만드는 데 힘을 과하게 주는 바람에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고 세상과 구별되는 성경의 거룩한 가르침에서 한발 물러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가령 과학이 지배한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창세기의 6일 창조를 거부하고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우를 범하여 결국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균형이 아니라 균열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팀 켈러를 읽는 사람은 이 부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가 이 책 <탈기독교시대 전도>를 통해 제시한 여섯 가지 쟁점에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절대자와 그분의 절대 진리를 무시한다 해도, 사람들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에게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소망을 구별된 삶으로 보여주고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 모든 탈기독교적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충성해야 할 일이다.

조정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7월, 작가들의 말말말②]

◆김현철-하나님의 게임체인저: 불꽃시대

한 제품의 가치는 그 제품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된 금액으로 그 가치가 결정된다. 조그만 휴대전화기가 백만 원



이지만, 큰 솜뭉치는 불과 1만 원도 하지 않는다. 3만 원을 주고 넥타이를 사면 그 넥타이는 3만 원짜리가 된다. 20만 원을 주고 마이크를 사면 그 마이크는 20만 원짜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임체인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 짜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 몸값으로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격은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것이다.

불꽃시대를 열어가길 게임체인

저가 가져야 할 첫 번째의 열쇠는 ‘자존감’이다. 게임체인저로 쓰임을 받으려면 자신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존감을 가진 이들을 게임체인저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존재감은 세상의 무엇을 가지거나 성취해서 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것을 획득하면서 자존감을 얻는다. 그러나 게임체인저의 자존감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다 나은 여건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아니다.

◆조엘 R. 비키 & 브라이언 G. 헤이스(저자), 조계광(옮긴이) - 은혜 안에서 번성하라

우리는 비록 거인들의 어깨를 딛고 서 있는 난쟁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 도달한 이유는 우리의 역사 때문이다.

조지 횃필드(1714-1770)든, 찰스 하지(1797-1878)든, 찰스 스펠전이든, 헤르만 바빙크(1854-1921)든, 그레샴 메이첸(1881-1937)이든, 마틴 로이드 존스든 그들의 전임자들이 없었

다면 과연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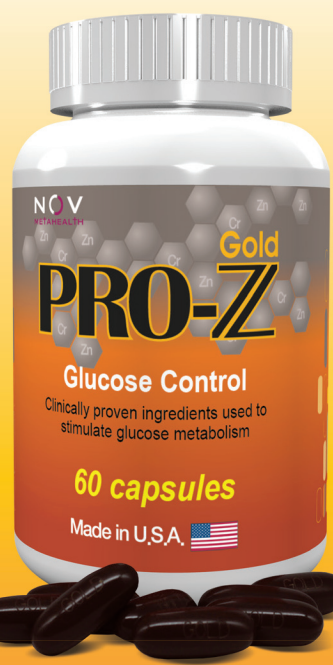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에 그들의 문헌이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오늘날에도 일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청교도 신학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증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면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릴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박찬욱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헤어질 결심> (2)

영화 <헤어질 결심> 속 탕웨이가 '그렇게 나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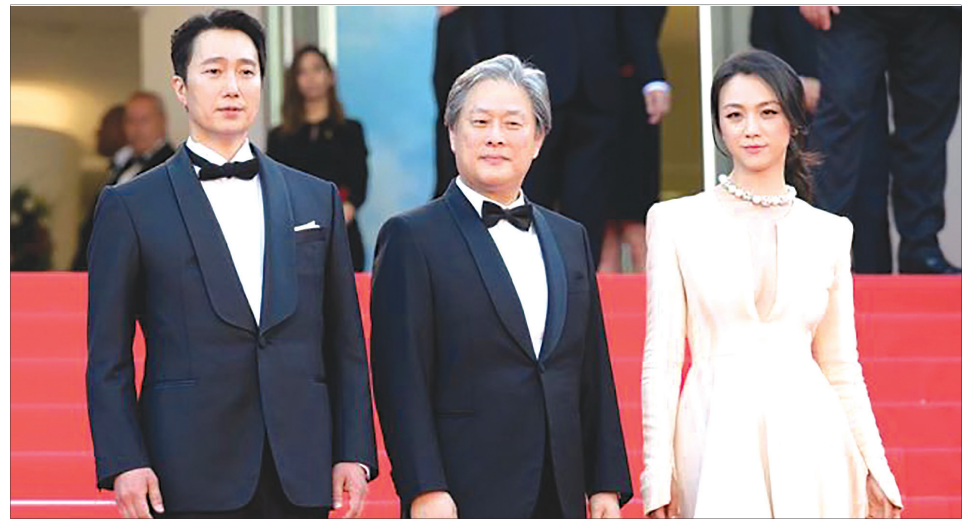
박찬욱 감독 작중 인물들, 정신적 결여와 피해 경험 삶의 불완전성 감내 실존적 운명 받아들일 것 요구

복음, 인간 연약함과 자기파괴, 악의 극복할 힘 부여 사회 부적응자, 삶의 진창에서 빠져나올 단서 제공

◆사회부적응자에 대한 관심: 불안전함과 부조리에 짓눌린 박찬욱 감독의 주연 캐릭터



<헤어질 결심>의 두 주연, 송서래와 박해준 각각의 삶의 불안은 잠시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접목시키는 데 일조하지만 끝내는 두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 된다.



(왼쪽부터) 칸 영화제에 참석한 <헤어질 결심>의 주연 박해일, 감독 박찬욱, 주연 탕웨이. ©CJ

박찬욱 감독의 작품 대부분이 그러하듯, <헤어질 결심>의 주인공 송서래(탕웨이 분)와 장해준(박해일 분) 역시 선악의 경계가 모호한(혹은 모호해진) 동시에 사회부적응 성향이 있는 인물이다.

송서래는 조선족 동포라는 출신성분과 어울난 한국어,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이라는 처지 때문에 한국인 남편에게 의존하며 남편의 폭력과 협박에 짓눌려 살고 있다.

장해준은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보서는 별 흠이 없어 보이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져서 경찰 일에만 매달리고 집착한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아니면 경제적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박찬욱 감독이 깊이 파고드는 주연급 인물들 대다수는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하나쯤은 심각한 부적응 요소를 지니고 살아간다.

<공동경비구역 JSA>의 오경필(송강호 분)은 겉으로는 북한의 엘리트 군관이지만, 나름의 소신과 뼈딴함 때문에 무능한 상관에게 시달리며 열정도 목표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수혁(이병헌 분)은 주변에서 대단한 군인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지만 실은 북한 군인들과의 위험한 우정을 나누는 일탈을 감행하다가 위기 상황에서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마는 유약한 인물이다.

<올드보이>의 오대수(최민식 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우진(유지태 분) 역시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부와 힘을 지녔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청소년 시절의 근친상간과 그것이 원인이 된 누나의 죽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인물이다.

<스토커>의 인디아(미아 바시코프스카 분)는 자신을 유일하게 깊이 이해해준 아버지의 죽음과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로서의 충동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소녀이고, <아가씨>의 이즈미 히데코(김민희 분)는 친척들의 음모와 성욕에 짓눌려 세상과 단절된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이처럼 박찬욱 감독이 깊게 관심을 두는 영화 속 주연급 인물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

상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결여되거나 피해받은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각자의 위치에서 주위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데 실패한 이들이다. 이들 캐릭터들의 부적응 요소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된 원동력이 된다.

이런 불안하고 연약한 심리적 정황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캐릭터들을 통해 박찬욱 감독은 현실 속 인간의 삶이 완전성보다는 불완전성에 함몰되어 있고, 그래서 완전성이라는 허상에 집착하기보다는 불완전함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실존적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인간다운'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삶을 강압적으로 정립된 완전함의 규격 안에 억지로 끼워넣으려는 시도를 보편화의 폭력으로 보는 실존철학적-포스트구조주의적 인간 이해를 내세우고 있다.

◆사회부적응자에 대한 해법: 온전함으로 이끄는 복음, 온전함을 포기시키는 철학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1926-1984)의 <광기의 역사>는 근대적 합리성과 기독교적 이성에서 유래된 서구 사회의 전통적 완전성 이념이 사회부적응자들(광인들)을 소외시키는 데 대한 철학적 분노를 표출한 작품이다. 박찬욱 감독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사회부적응자들에게 보이는 관심과 애정은 바로 푸코의 해체주의 인간 이해와 궤를 같이한다.

이런 인간 이해는 세속에서의 사회부적응자들을 신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온전케 하는 복음의 의도와 상충된다.

기독교회는 그 탄생 시점부터 사회부적응자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억압된 자들, 소수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교인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기독교적 인간 이해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인다는 점에서, 실존철학적-포스트구조주의적 인간 이해와 약간의 유사성을 갖는다.

하지만 양측은 이렇게 불안전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의 해법을 제시한다. 현대철학의 해법이 불안전성 그 자체를 수긍하고 그에 대한 주위의 보살핌과 윤리적 책임을 요청하는 반면, 기독교적 해법은 불안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도록 지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정신이상자가 있거나 사회적 부조리에 짓눌려 고통당하는 이들을 압도적인 권능으로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그 완전한 권능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각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소외된 이들, 번두리로 내몰린 이들을 붙들어 온전케 해야 할 소명을 이어받았다.

여기서 온전케 함이란 세속적인 성공이나 영달로 이끌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온전함, 즉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온전함으로 이끄는 일을 말한다.

반면 박찬욱 감독의 작품은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관계 실패에 따른 부적응 및 정서적 불안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온전케 하려는 의지를 근본적으로 포기하도록 종용한다.

<헤어질 결심>에서 송서래와 장해준의 서로를 향한 깊고 희생적인 애정과 배려는 송서래가 조선족 동포 여성을 향한 사회적 억압과 부조리에 못이겨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장해준이 아내와의 화합에 실패해서 짙은 패배감과 허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

즉 작중 송서래와 장해준의 위태롭고 불안한 처지와 심리상태는 각각을 두고 본다면 부(negative)의 효과를 낳지만, 둘이 합쳐지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정(positive)의 효과를 낳는 요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헤어질 결심>에서 두 주인공이 지닌 각자의 사회부적응 요소는 타인이 억지로 교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감내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실존적 가능성으로 묘사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선과 악의 경계를 흐리는 모호한 다윈주의 윤리관과 마찬가지로, 삶의 일정한 기준과 토대를 근본으로부터 제거하는 해체주의적 태도에서 유래된다.

반면 기독교적 인간 이해는 한 개인이 어떠한 불안과 부조리,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함이라는 확고한 기준을 지켜내도록 권고하고 요청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삶의 고난과 유한성에 대한 박찬욱 식의 해법은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처사로 일해진다.

따라서 <헤어질 결심>의 두 주인공이 각자 선택한 삶의 방향성은 감독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름답고도 진중한 애정과 배려를 낳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각자의 삶 파괴로 막을 내릴 뿐이다.

송서래는 끝내 바다가 되고, 장해준은 끝없는 슬픔에 잠긴 채 그녀를 찾아다닌다. 복음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자기파괴 성향 그리고 악의를 극복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주며, 인간이 그 불안전성에 짓눌려서 자멸하고 무너지는 것을 수긍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박찬욱 감독의 삶에 대한 관점과 기독교적 인간 이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헤어질 결심> 전체를 관통하는 송서래의 대사, "내가 그렇게 나쁜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박찬욱 감독은 "아니다"로 답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렇다"로 답한다.

여기서 그녀의 삶이 나쁘다는 대답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정죄가 아니라, 그 삶의 방식에 깃든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요소를 진단하고 온전함을 찾으려 권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토대로 삼는 삶의 온전함, 이는 사회부적응자들이 삶의 진창에서 빠져나올 단서를 제공하는 기독교적 지혜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박찬욱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보험자 Rate 월 보험료/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이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3시간 사고영향 완화유선 연락가능 무료견적 받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밥, 오방떡,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3차 8.15 광복 77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HOUSTON 2022]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HOUSTON 2022]

"오직, 복음통일만이 통일의 답입니다" (행1:6~8)
Only, the answer is Gospel Reunification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 19일(금)
- 장 소 : 휴스턴한빛장로교회(3929 Colgate Street Houston TX 77087)
- 문 의 : 주최측: 425-775-7477, 주관교회: (713) 643-4348
- 대 상 : 한어/영어권 성도들과 청소년 2세 모두
- 참가안내 : 점심/저녁 개최 교회 제공, 인근숙박정보등 상세 안내는 공식홈페이지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연합) 고명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통일연합기도) 이윤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분단원인/회개각성) 오창희 목사 원플교회담임



(탈북구제사업)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북한농업실무)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통일영상의 필요) 윤학렬 감독 '월가방우수씨'



(탈북청년 정착대안) 박대현 형제 통일의정거다리 '우리은'대표



(북한현실/문화) 강동완 교수 동아대학교



(북한지하교회역사) 강석진 목사 극동방송



(주관교회) 정영락 목사 한빛장로교회



(통일전략/북한통치이해) 김요한 목사 유니티미션



(탈북증언과 통일비전1) 배영호 전도사 장로회신학대학원



(북에서 남으로)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탈북증언과 통일비전2) 안성민 전도사 침례신학대학교



(통일청년세대) 조평세 박사 '바로서다' 이사



(사무총장) 박상원 목사 굿뉴스보다 더 큰 목마름

이외에 탈북청년들의 간증들이 있을 예정이며, 강의는 covid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차 대회 집회일정표

	15일(월) 새벽기도회	16일(화)	17일(수)	18일(목)	19일(금)
09:00~10:20 전체주제 오전강의(1)		탈북신학생 간증(1): 침례신(2)	조평세 박사 "링컨의 노예 해방과 한반도 통일"	강석진 목사 "근현대사속의 하나님의 섭리와 통일 비전"	윤학렬 감독 메타버스! "영상을 통한 복음통일"
10:30~11:50 오전강의(2)		탈북신학생 간증(2): 강신/성결신	특별발언대: 영어권과 한.미관계	김요한 목사 "북한상황하에서 본성경적통일선교 신학과 전략"	미주통일연합 기도회활동소개: 시카고 & D.C
12:00~14:50	오찬 다함께 휴식				
15:00~16:20 오후강의(3)	환영/ 등록	탈북신학생 간증(3): 강신/총신	박대현 대표 "잘 정착된 북한 청년들이 대안일 수 있다"	김학송 목사 "북한농업은 물이 답이다"	김연영 선생 "10대는 북에서, 20대는 남에서"
16:30~17:00		교단별 격려시간	분야별월삼 & Q n A	분야별월삼 & Q n A	분야별월삼 & Q n A
17:10~18:50	만찬 다함께				
19:00~21:00 찬양과 저녁집회	개회집회: 임현수목사 "오직 복음통일 만이 답입니다" (행1:6-8)	저녁집회: 고명진목사 "오직 복음으로" (막1:1)	저녁집회: 오창희목사 "이 시대의 다니엘을 찾습니다" (단 9:1-6, 19)	저녁집회: 강동완교수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겔 34:16)	폐회집회: 통일공모대상/ 연합기도회

2022년 복음통일상 공모전

세계의 최고 상으로 노벨상이 있다. 이시대 최고의 뉴스가 될 남북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도 상이 필요하다. 비록 작지만 통일의 각성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아래처럼 3가지 분야의 우수작품들을 이번 3차대회를 통해서 공모하여 시상하려고 한다.

주제: "내일 통일이 된다면", "왜 복음통일인가", "통일의 세계사적 의미", "복음통일만이 답이다"

상금: 아래 각 분야별로 각 \$1000이며 대회 마지막 날(19일 금) 참석자들의 투표로 발표함.

- 1) 복음통일 포스터: 크기는 자유이며 통일의 희망과 통일된 감동을 그리면 된다.
- 2) 복음통일 기도문: A4 용지 2/3 분량(글자크기 11포인트)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감동의 기도문
- 3) 복음통일 동영상(2~3분내): 본인의 연설 혹은 통일각성 제작동영상(형식은 자유)

위의 직접 창작한 그림과 글과 동영상을 아래 연락처로 2022년 8월 3일(소인날짜-한국), 13일(소인날짜-미국)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시는 주소: (한국)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2 수정타운(12동-301호) 받는이: 기드온선교회

(미국) 3929 Colgate Street Houston TX 77087 받는사람: Houston Hanbit (3RD Award)

문의: gbmwusa@gideonbrothers.org / gbmwkorea@naver.com (기도문과 동영상 이메일로 접수)

· 상금 기부 환영: 위의 상금에 본인의 이름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수여 가능하오니 복음통일의 열정과 비전을 담은 분들(교회들)의 귀한 참여를 바랍니다.

· 위 대회 진행을 위한 기부현금도 받습니다. (한국) 신한은행 100-032-117976(기드온동족선교회), (미국) 체크: 16825 48th Ave. #345, Lynnwood, WA 98037 Pay Order to: GBMW / (해외모두) PayPal: @swp2019 (모든 후원현금은 세금공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of Diaspora

주관: 기드온동족선교회 / 한빛장로교회 협력: 휴스턴교협 협찬: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LIVESREAM